

연중 제30주일

제 1 독서 : 예레 31, 7-9

제 2 독서 : 히브 5, 1-6

복 음 : 마르 10, 46-52

# 숲 정 이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마르 10, 51-52).

## 강론

### “따라 나섭시다”

김영신 신부 / 해성 종교감

“랍부니(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예리고의 소경 걸인 바르티매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 예수라는 말을 듣고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께 매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예수께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바라는 바를 얻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분께 무엇을 청하는가?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들의 대학입시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 매달리는가? 구하는 바를 얻고 나면 눈을 뜬 바르티매오처럼 예수를 따라 나서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안주하고 마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윤리도 도덕도 무너진지 오래된 세상마냥 지저분한 일들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 교수와 총장이 돈 때문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세상이 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차를 몰아 엉뚱한 사람들이 비명 횡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눈을 감고서 닳치는 대로 사는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늘상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살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며 사는 듯이 보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서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죽이는 아픔이 따르는 십자가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얻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만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 사물을 옹계 보고 있는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마음의 눈이 열렸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매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하겠습니다.

## 소리

### “허깨비 쫓기”

세상이 너무나 요지경 속이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돈을 챙기는가 하면, 공부 시켜준다며 성적인 만족을 채운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사건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런가 하면 촌놈이라고 무시했대서 터지는 부아통을 어찌지 못하고 불을 지르고, 세상이 밋다고 닳치는 대로 차를 몰아대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찌다가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가. 술집 문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젊은이나 술집을 찾은 시골 청년이나 힘없고 돈 없기는 매양 한가진데, 어찌다가 그렇게 알곡은 운명으로 만나서 그토록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만들었는가. 동년배의 젊은이들이 시위대와 전투경찰로 만나서 적 아닌 적으로 대치하다가는 똑같이 병원 신세를 지는 비극이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지금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 권력이요, 사회 발전에 쓰여지는 재물일 때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억누르는 지배욕으로 둔갑하고, 자신만을 위한 지나친 탐욕으로 변모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멍들게 하는 한낱 허깨비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 허깨비를 쫓느라고 허둥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부터가. 지금이 바로 뒷바라지에 가리워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 놓아야 할 때이다. 허깨비를 쫓기 위해서. [甲]

### 숲 정 이 산책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④

“몸으로 말하는 사람”



최 병 래(안토니오)/전동 성당

남부시장에서 메리야스 가게를 하는 최병래(안토니오) 형제는 애령회장으로 더 알려져 있다. 십이지례양으로 다섯 차례나 위투시를 하는 등 고통이 심했을 때, 그는 안득수 형제를 만났다. 암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안 박사가 그에게 “교회 활동을 좀 하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애령회 활동이었고, 3년만 해보겠다고던 것이 15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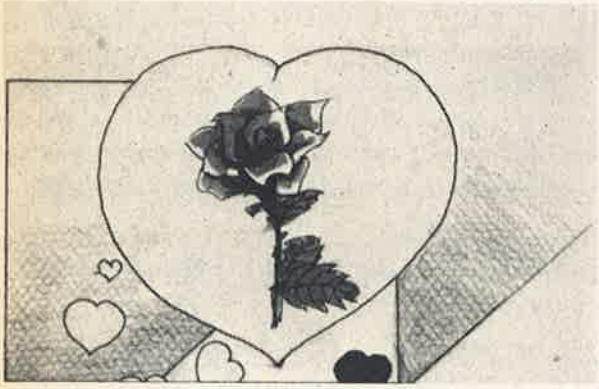
최 회장은 겁장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토록 오래 할 수 있었는지 항상 생각해도 하느님의 섭리가 고맙기만 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나 무서움을 잘 뺏던지 부끄럽게도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면 부인을 보초(?)로 세워야 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시신을 다루는 일에 능숙해져서(?) 그의 손을 거친 시신만 해도 8백여 구에 달한다. 그는 그 일을 그보다 먼저 애령회 활동을 하던 셋째 형, 최병화(그레고리오·68세) 씨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다 되었다. 사실 어떤 시신은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일주일 동안이나 냄새가 가시지 않는 통에 힘들기도 했다. 시신이 불어나 관뚜껑을 제대로 닫을 수 없어 애를 먹기도 했다. 그래도 그 일에 온몸을 던져 애쓰는 그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신자가 되는 가족을 만나는 일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갇아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여겨져 오늘도 그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하관 예절시에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며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은 평화의 기도를 바친다. 이것이 말보다 몸으로 전교하는 최병래 회장의 모습이다.

최병래 회장은 6대째로 이어지는 구교우 가정으로, 그의 선조들은 상관 마작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올해에 된 여섯인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호구지책을 꾸리는 일만도 그에게는 벅찼다. 열 세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별약별 일을 다했다. 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버스 차장 노릇도 하는 등 밥만 먹여주는 데라면 어디서고 감사하게 여기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신앙생활에도 게으르지는 않았다. 고생은 많이 했어도 어머니를 내 집에서 편히 가실 수 있게 했으니 여한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4년 전 그의 모친이 선종했을 때, 7백여명이나 찾아와 조의를 표해준 형제 자매들에게서는 현세에서도 갇아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

마침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전북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출가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큰딸 루시아(29세) 자매를 만났다. 흑시라도 아버지가 남의 시신이나 만지고 다녀서 자녀로서 창피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결혼할 적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물었다. 물론 어렸을 적에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기보다는 상가만 열심히 찾아 다니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한다. 보통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녀의 심정을 말한 그는 딸을 여워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애로가 있었는지 몰라도,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아버지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도 했다.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자녀들의 고운 심상을 볼 수 있어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편안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고 혼자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많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몸으로 말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근년에는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세 차례나 받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라도 그를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한다. “한 일도 없는데…”라는 말을 들으며 취재를 마쳤다. ㉞



**주부시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 88-8027 야간71-5827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 1가 130-4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양재·한복·홍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앞  
 ☎ 86-2715  
 \* 냉난방 완비

**순 꼬리로만 곰탕**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 션)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 72-5801

잡 관 /

“교회 안에도 비판이 필요하다”

얼마 전 나라 안에서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었고, 지난 10월 8일과 9일에는 양당 대표 위원들의 연설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8년 가을 광주 청문회에서 나타난 즉, 독재에 대한 항쟁 광주시민도, 무자비하게 시민을 학살한 군부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말하자면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팽풍식으로 잘못된 기독교관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나라 살림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본당에서는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심의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운영과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교구 전체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제도와 무관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운영이 잘못되어가는 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든지,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한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정신도, 복음정신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맹목적인 순종이나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바른 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잘못된 기독교관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 구 소 식

- ※ 윤에릭·배요셉 신부 회갑미사 : 10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11월3일 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 2. 재무 평의회 : 10월29일(화) 오전10시.
- 3. 꾸르실로 총회 : 11월2일-3일 친호 피정의 집.
- 4. 청소년 종합 예술제 : 11월3일 오전9시30분 성심여고 강당.
- 5.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9일-10일 나마위 성당 교육관.
- 6.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1월2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7. 성모의 기사회 : 11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8. 전화번호 신설 : 원평 성당 수녀원 (0658)43-0881.
- 9. 주소 변경 : 김선태 신부 - Kim Johannes(sontae)/Justinusheim/Freudenbergstrasse, 146/8044 CH-Zürich/Schweiz.
- 10. 교구 합창단 발표회 : 11월1일(금) 오후7시30분 학생회관.
- ※ 축! 영명 : 28일(성서문과 유다) 박중신, 한봉섭, 서정환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11월3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 11월3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 사랑의 씨튼수녀회 : 11월3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 (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깨끗한 자연, 유익한 자연을 위해

등산, 캠핑시에 가지고 간 물건 중 플라스틱, 강통 등 대위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 되 가져옵니다. 깨끗한 자연, 유익한 자연을 위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집니다.

가스보일러·가스렌지·온수기등 가스기구 시설

### 제일 가스상사

조운진(클레멘스)  
김점순(엘리사벳)

☎ 222-4832  
222-4611, 6255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올젠, 판·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 여사무원 채용

- 자격-고졸 이상(상고)
- 영세한 지 3년 이상
- 제출 서류-자필이력서 1통,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본당신부 추천서, 영세증명서

덕진천주교회 ☎ 72-5302

### 새성전 은인 구할

송학동 새성전에 필요한 바롬 은인을 찾습니다

1. 제대복화(프레스코화) : 500만원
2. 제 단(도자기) : 200만원
3. 향초지화(상문) : 200만원
4. 감실(도자기) : 100만원
5. 감론대(도자기) : 100만원
6. 기타 : 뜻대로

송학동 성당  
문의 (0658) 841-9713 (사무실)  
51-5340 (사제관)

###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 오미용실

신부화장 전문, 특수 헤어스타일  
정통고데·컷트, 피부미용관리  
완산구 중노송동 478-32  
오정희(데레사)  
☎ 88-1603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미사시간변경: 11월5일부터 저녁미사 7시로.
2.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3. 8월 영세자 첫교백: 11월3일 후2시.
4. 빈첸시오: 31일 전9시30분.
5. 제대회: 31일 전10시30분.
6. 성령기도회 आयुही: 31일(목) 후2시 장소-치명자산
7. 사목회 상임위원회: 11월1일 후8시.
8. 병자봉성제(각가정에 환자가 있으시면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9. 금주청소: 중노1가7, 6만 차주청소: 중노1가7, 8만.
- 지난주 봉헌금: 1,045,460원 □ 교무금: 1,084,500원
- 2차헌금: 328,51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회장단회: 저녁미사 후 2.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3. 중·고 체육대회: 완산 중학교
4. 제대회: 31일 오전10:30
5. 대헌회: 3일 공식미사 후 6. 사목회: 3일 저녁미사 후
7. 가정방문: 29일 전복2반 오후1시, 31일 전복 3, 4, 5반 오전9시.
- 성당청소(2일): 평화의 모후, 능하신 경녀
-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강주호씨 부부 봉헌-이갑규씨 가족
- 위령의날: 김영수 독서-이갑진, 송철수  
봉헌-김종근씨 가족
- 차주전례: 최영남 독서-천철범씨 부부  
봉헌-박봉규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46,170원 □ 교무금: 855,3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견진: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3. 성서읽기: II 데살로니가 전제
4. 청소봉사: 성실하신 동경녀Pr
5. 성지순례: 11월13일(수) 오전8:00 출발
6.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사목회: 2일(토) 저녁미사 후
8. 금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분영호 ②주영례  
봉헌-유순천, 유춘근
- 차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양태환 ②정미순  
봉헌-강문옥, 황옥섭
9. 울뜨레아: 31일 저녁
- 지난주 봉헌금: 253,420원 □ 교무금: 112,000원
- 2차헌금: 103,46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연중제30주일!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1. 회의: ①꾸리아-오늘오후2시 ②사목회-11월6일(수)저녁미사 후 ③자모회-다음주 수요일(11월6일)12시 ④반장회-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반장님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2. 알림: ①남전주지구중고체육대회-10월27일(오늘)오전9시부터 완산중학교교정에서 ②초등부주일학교어린이가을소풍-10월27일(오늘)장소-덕진왕릉으로(성심회 및 자모회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부탁하오며, 뜻있는 분들의 지도와 협조바랍니다. ③교무금-년말이 되어가니 교무금미수가 많은신분들께서는 미리 납부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615,500원 □ 교무금: 65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사목회: 31일(목) 저녁미사 후
2. 중·고 체육대회: 오늘9시-오후6시 완산중(본당 9시미사 없음-8시까지 본당집결후 출발)
3. 자모회원 1일피절: 29일(화) 오전9시 목욕탕앞 버스출발
4. 견진교리: 11월2일 오후7시30분
5. 청소봉사: 서완산동2가구역
- 지난주 봉헌금: 6142570원 □ 교무금: 933,000원

**\* 전통**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오늘은 교부금 납부주일. 4. 성미리아 꼬미시음: 오늘오후2시.
2. 초등부 주일학교 성지순례: 오늘(여산, 천호성지)3시미사 없음
3. 중·고생 체육대회: 오늘. 장소-완산역상 운동장(남전주지구)
5. 「전통100년」화보집 판매: 20,000원 6. 성령기도회: 매주금요일 저녁미사
7. 성가집회: 11월1일 오전11시.
8. 유아세례: 11월2일(토)오후3시. 사무실에 접수.
9. 다음주: ①청소년 종합예술제-중·고등부 장소-성심여고강당.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승골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④구역봉사자 모임-오후7시 ⑤9월영세자 첫교백-미사중
- ※ 금주보수비헌금액: 479,000원 ※ 현재모금총액: 250,666.80
- 지난주 봉헌금: 1,762,02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1일 후7시30분(1일-8일까지 매일 묘지 방문하고 연령을 위해 기도하던 전대사를 받음)**
1. 위령의날 합동미사: 2일 전10시30분. 교회묘지에서 10시 출발.
  2. 합동 위령미사 접수: 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3. 사목회: 2일 후8시. ※91년 사업보고와 92년 예산안 보고
  4. 청년회 피절: 2일-3일, 장계성당(본당출발 후2시)
  5. 반미사: 29일 전3-3, 후2-1, 31일 전4-4, 후3-4
  6. 남전주지구 학생 체육대회: 오늘 전9시, 완산역상 교정
  7. 유아세례: 2일 후2시30분, 신청서 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람.
  8. 회의: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675,690원 □ 교무금: 1,21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예비자 교리반 첫모임: 오늘미사 후
2. 울뜨레아·청년회: 오늘미사 후
3. 주일학교 성지순례: 11월3일(일) 장소-천호, 여산, 나바위 성지(오전8시 출발 오후6시 도착. 준비물-도시락)
4. 사목회: 다음주요일미사 후
5. 교적을 정리 해주십시오-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6. 청소봉사: 은총의 증개자Pr
7.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정명자·강병조
-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민혜리·유대희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증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감사! 교구사제피경을 위해 많은기도에 감사합니다.
2. 해미성지순례: 신앙의 절정인 순교는 모든신자들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순교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비록 들리지는 않아도 순례의길은 결코 값진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10일 07시-오후7시)
3. 견진교리: 매주(금)후7시30분 학생(토6시)
4. 유아세례: 10월30일(수) 저녁미사 중
5. 부활반예비자교리: ①일(09시40분) ②목(후7시30분) ③금(10시40분)
- ※ 밤이 육신을 살찌게하듯 전교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6. 모임안내: ①파티마오후 꾸리아-수(10시) ②전례해설단모임-화(저녁미사 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반석회·요셉회: 공식미사 후 2. 여성분과회: 1일(금)10:00 미사 후
3. 안심공소미사: 1일(금)저녁
4. 반희정단합대회: 29일(화), 장호-해미성지
5. 가정방문: 30일(수)호암, 31일(목)여매, 11월1일(금)중앙
6. 성가대단합대회: 11월5일(화)오전9:00 모악산
- 차주모임: 꾸리아, 사목회
- 신속헌금봉헌금: 560,000원, 폐품충수입금: 1,038,970원
- 금주전례해설: 박명래 독서①이수현 ②이정옥  
기도-문병식, 구문순
- 차주전례해설: 김광년 독서①이준영 ②순선희  
기도-박정춘, 임혜선
- 지난주 봉헌금: 919,320원 □ 교무금: 2,149,000원